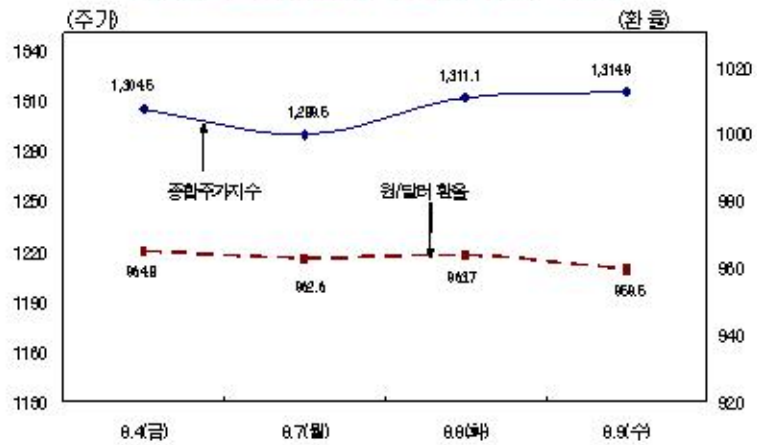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4~8.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 경제 성장 활력 잃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 변화 특성 1

주간 경제 동향 12

□ 실물 부문 :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단념자 확대 12

□ 금융 부문 : 美 연준 금리 동결로 美日 금리 소폭 하락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거시경제실 :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국 경제 성장 활력 잃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 변화 특성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는 물론,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낮은 사상 초유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저성장 국면 지속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 활력이 각 경제 부문에서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소비 부문이 경제 안전판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도 경제성장률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 회복 속도가 미약하다. 반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소비/국내소비지출 비중은 2002년 2.8%에서 올해 상반기 3.4%로 급증하고, 여행수지도 2002년 45.3억 달러 적자에서 2005년 96.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 이후 매해마다 하반기에 소비 심리가 상반기보다 낮아지는 상고하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설비투자가 부진하여 성장 잠재력 훼손이 우려된다. 2003~2005년 국내 설비투자는 2.6% 증가하는 데에 그쳐, 2005년 실질 설비투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78조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셋째 對 중국 수출 실익이 미흡하여 국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 비중은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전체 수출의 20.9%에 달한다. 그러나 對美 수출과는 달리, 對 중국 수출 품목들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39.8%), 자본재(52.4%) 등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소비재 비중은 5.9%에 불과한 형편이다. 넷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제 전반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1년 2/4분기 5.04에서 2004년 2/4분기에 4.93까지 개선되었으나, 2005년 2/4분기와 2006년 2/4분기에 각각 5.13 및 5.24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다섯째 IT 산업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저성장기에도 IT 산업 자체적으로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IT소비/IT수출 비중이 2000년 36.7%에서 2005년 20.3%로 크게 축소된 점을 고려해 볼 때, IT 산업의 고성장은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IT기기와 반도체의 수출단가지수가 2000년 100에서 2005년에 각각 71.3 및 24.0으로 크게 하락하여, IT 수출 실익이 낮아 전체 경제의 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금융 시장의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자금이 저성장, 저금리 지속 등으로 기업 생산 능력 확충과 같은 생산적 부문이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 일반은행의 가계대출/기업대출 비중은 2001년말 78.8%에서 2006년 3월 현재 107.6%로 급증하였다. 특히 일반은행의 총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 비중도 2001년 24.8%에서 2005년 37.3%로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 회복력이 약화되어 잦은 국내 경기 변동 주기가 갈수록 단축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00 이상을 지속한 기간은 외환위기 이전 1994년 11월 ~ 1998년 1월의 39개월에서, 최근 2005년 12월 ~ 2006년 4월의 5개월로 축소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경제 활력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 규제 개혁과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을 통해,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는 고용 증대, 소득 증가, 소비 증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 처방이다. 한편 수출의 실익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주력 산업인 IT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IT 이후의 신산업 부문의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국내 투자은행업 지원, 대형 기업신용평가회사(CB)육성, 투자은행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금융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 경제 성장 활력 잃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 변화 특성 >

한국 경제의 저성장 (2003~2005)	
세계 성장률을 하회	- 한국 경제성장률 : 03년 3.1%, 04년 4.7%, 05년 4.0% - 세계 경제성장률 : 03년 4.1%, 04년 5.3%, 05년 4.8%
동아시아 경쟁국보다 낮은 성장률	- 한국 : 2003~05년 연평균 3.9% - 대만 : 4.5%, 홍콩 6.4%, 싱가포르 6.0%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 구조 변화 특징	
소비 경제 안전판 역할 상실	-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하회 지속 - 해외소비 급증 : 여행수지 02년 45.3억 달러 적자 ⇒ 05년 96.5억 달러 적자
설비투자 부진	- 설비투자 증가율 : 2000~02년 10.7% ⇒ 2003~05년 2.6% - 2005년 실질 설비투자 규모 96년의 78조 원에 불과
수출 실익 미흡	- 대 중국 수출 비중 2005년 현재 21.8% (1위) - 내구소비재 수출 비중 : 중국 5.9%, 미국 41.0%
소득 양극화 심화	- 소득 5분위 배율 : 04년 2/4분기 4.93 ⇒ 05년 2/4분기 5.24
IT산업의 한계성	- IT소비/IT수출 비중 : 2000년 36.7% ⇒ 2005년 20.3% - 반도체 수출 단가지수 : 2000년 100 ⇒ 2005년 24.0
금융 시장 악순환 구조 지속	- 가계대출/기업대출 : 01년 78.8% ⇒ 06년 3월 107.6% - 주택담보대출/총대출 : 01년 24.8% ⇒ 05년 37.3%
작은 경기 변동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 이상 지속 기간 : 94년 11월 - 98년 1월 (39개월) ⇒ 05년 12월 - 06년 4월 (5개월)



- ❖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획기적 규제 개혁, 기업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
- ❖ 수출 경쟁력 제고 :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 ❖ 성장 동력 육성 : IT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 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
- ❖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 선순환 구조 확립 : 투자은행업 지원, 기업신용평가회사 육성 등

□ 한국 경제 성장 활력을 잃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 변화 특성

1. 한국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 한국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 경제는 물론,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성장률이 낮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됨

- 저성장 장기화 :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003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한국 경제는 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의 세계 IT 버블 붕괴 등의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 세계 경제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함
 - 그러나 2003년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세계 평균보다 낮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함

<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E)
세계 경제성장률 (IMF 기준)	4.8	2.6	3.1	4.1	5.3	4.8	4.9
한국 경제성장률	8.5	3.8	7.0	3.1	4.7	4.0	4.5

자료 : IMF, 한국은행.

주 : 2006년 수치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IMF, 한국 경제성장률은 현경연 전망치임.

- 특히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인 2003~2005년 기간 동안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발전 단계상에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 경쟁국들의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동아시아 경쟁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

(%)

	1인당 GDP	경제성장률		
		2000~02 (A)	2003~05 (B)	B-A
Korea	16,421.7	6.4	3.9	-2.5
Taiwan Province of China	15,119.7	2.6	4.5	1.9
Hong Kong SAR	25,444.0	4.1	6.4	2.3
Singapore	26,835.0	3.9	6.0	2.1

자료 : IMF.

주 : 1인당 GDP는 2005년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current prices 기준임.

2. 저성장 국면에서의 국내 경제 특징

○ 2003~2005년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 위치한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경제 안전판 역할 상실, 설비투자 부진에 따르는 성장 잠재력 훼손, 수출 실익 미흡, 소득 양극화 심화, IT 산업의 한계성 표출, 금융 시장의 악순환 구조 지속, 잦은 경기 변동 등의 특징을 나타냄

① 소비 : 경제 안전판 역할 상실

○ 소비 부문은 2002년의 소비 버블이 붕괴된 이후, 외형상 회복되고 있는 듯이 보이나, 해외 소비 급증, 소비 심리 불안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 성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소비의 성장 견인력 상실 지속 :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2년에 경제성장률 7.0%를 상회하는 7.9%를 기록하였으나, 2003년 이후 최근인 올해 상반기 까지도 경제성장률을 넘어서지 못함
- 해외소비 급증 : 반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소비/국내소비지출 비중은 2002년 2.8%에서 올해 상반기 3.4%로 급증함
 - 특히 국제수지 상의 여행수지는 2002년 45.3억 달러 적자에서 2005년 96.5억 달러로 약 두 배 증가함(올해 상반기에만 약 60억 달러 적자 기록)

< 소비 관련 지표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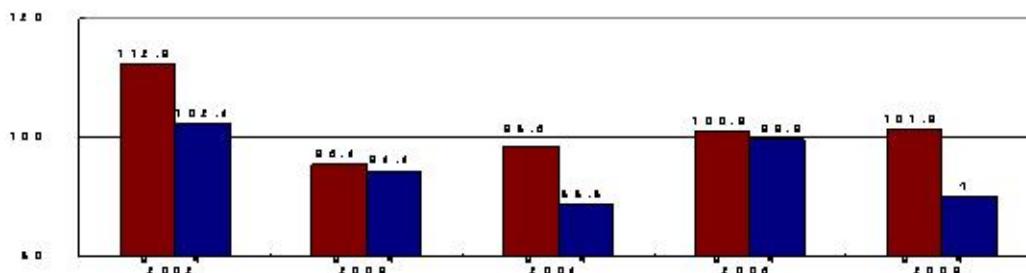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7.0	3.1	4.7	4.0	5.7 (상반)
민간소비 증가율	7.9	-1.2	-0.3	3.2	4.6 (상반)
거주자국외지출 / 국내소비지출	2.8	2.6	3.1	3.3	3.4 (1/4)
여행수지(억 달러)	-45.3	-47.4	-62.8	-96.5	-59.8 (상반)

자료 : 한국은행.

주 :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의 2006년 상반기 자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소비 심리 불안 : 국내 경기 회복력이 미약하여 매년마다 연초의 소비 심리 상승세가 하반기에 하락하는 '소비 심리의 상고하저' 패턴이 반복됨

< 소비자기대지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각 연도 상반기 및 하반기 내의 월 지수의 평균치임.

② 설비투자 : 경제 성장 잠재력 훼손

○ 국내 설비투자는 저성장기인 2003~2005년에 부진하여 실질 설비투자 규모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에 들어서도 기계류 설비투자에 국한된 부분적인 회복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설비투자 증가율 급락 : 국내 설비투자는 2000년 이후 고성장기에 연평균 10.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저성장기인 2003~2005년에 2.6%로 급락함
- 실질 설비투자 규모 정체 : 2005년 실질 설비투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78조 원에 불과함
- 운수장비 부문 침체 지속 : 최근 설비투자 회복세는 기계류 부문의 증가율 상승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의 다른 부문인 운수장비의 경우 침체가 지속됨
 -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3년 2.2%에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7.2% 및 6.8%로 회복세를 나타냄
 - 반면 운수장비의 경우 2003년 12.2%의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2004년 8.9% 감소, 2005년 2.7%의 감소세를 지속중임
-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용 부진, 소비 침체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을 저하시켜 성장 잠재력 약화 문제를 유발

<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

(%)

		2000-2002	2003-2005	2003	2004	2005
증가율	설비투자	10.7	2.6	-1.2	3.8	5.1
	운수장비	7.3	-7.9	-12.2	-8.9	-2.7
	기계류	11.9	5.4	2.2	7.2	6.8
설비투자 대비 비중	운수장비	24.3	21.1	23.7	21.1	18.5
	기계류	75.7	78.9	76.3	78.9	81.5

자료 : 한국은행.

주 : 설비투자는 무형고정자산 투자를 제외한 것임.

③ 대외거래 : 수출 실익 미흡 (국내 경기 회복에 조력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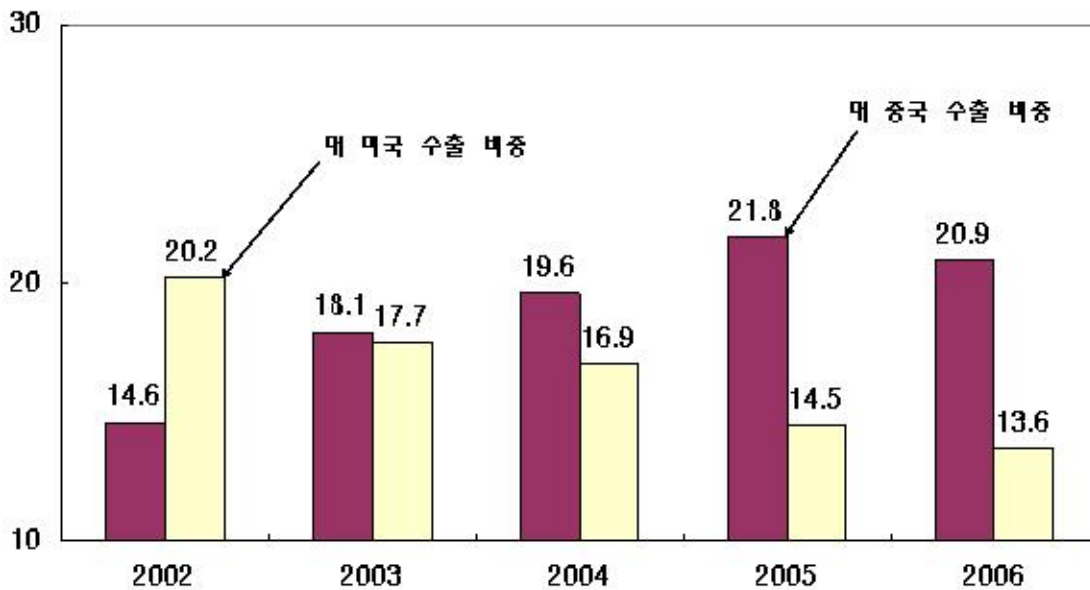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對 중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출 경기 상승세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對 중국 수출 품목들이 원자재나 자본재와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상품들의 비중이 높아 수출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중국 수출 비중 증가 :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2003년에 단일 수출 대상 국가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수출 비중 1위국으로 부상함

· 이에 따라 2006년 1~6월 현재 對中 수출 비중은 20.9%로 對美 수출 비중 13.6%를 크게 상회함

< 대 중국 및 미국 수출 비중 추이 >

(%)



< 대 중국 및 미국 수출 증가율 추이 >

(%)

	2002	2003	2004	2005	2006
중국	30.6	47.8	41.7	24.4	12.0
미국	5.0	4.4	25.2	-3.5	5.3

자료 : 통계청.

주 : 2006년은 1~6월 기준임.

- **對 중국 수출의 낮은 소비재 비중** : 2005년 對 중국 전체 수출 중에서 소비재 비중은 7.7% (47.7억 달러)로 대미 수출의 45.6% (188.4억 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함
 -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소비재의 경우 對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한 반면, 對美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0%에 달함
 -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원자재 (39.8%), 자본재 (52.4%) 등 원부자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대 미국 수출의 경우 소비재가 전체 미국 수출의 절반 가량인 4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비재 수출 단가 상승** :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수출단가지수를 살펴보면, 2000년 수출단가를 100으로 했을 경우, 내구소비재인 가전제품, 승용자동차의 2005년 단가지수가 각각 90.7 및 119.6을 기록함
 - 반면 자본재인 정밀기기의 경우 70.2, 반도체는 24.0으로 수출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원료 및 연료, 석유 제품 같은 경우, 최근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 현상에 의해 수출 단가가 상승세를 지속중임

< 중국 및 미국 수출 품목 구성 >

(단위 : 억 달러, %)

	대 중국		대 미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수출	619.1	100.0%	413.4	100.0%
원자재	246.3	39.8%	86.7	21.0%
자본재	324.4	52.4%	137.8	33.3%
소비재	47.7	7.7%	188.4	45.6%
내구소비재	36.6	5.9%	169.6	41.0%
기타	0.7	0.1%	0.5	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05년 기준임.

④ 분배 : 소득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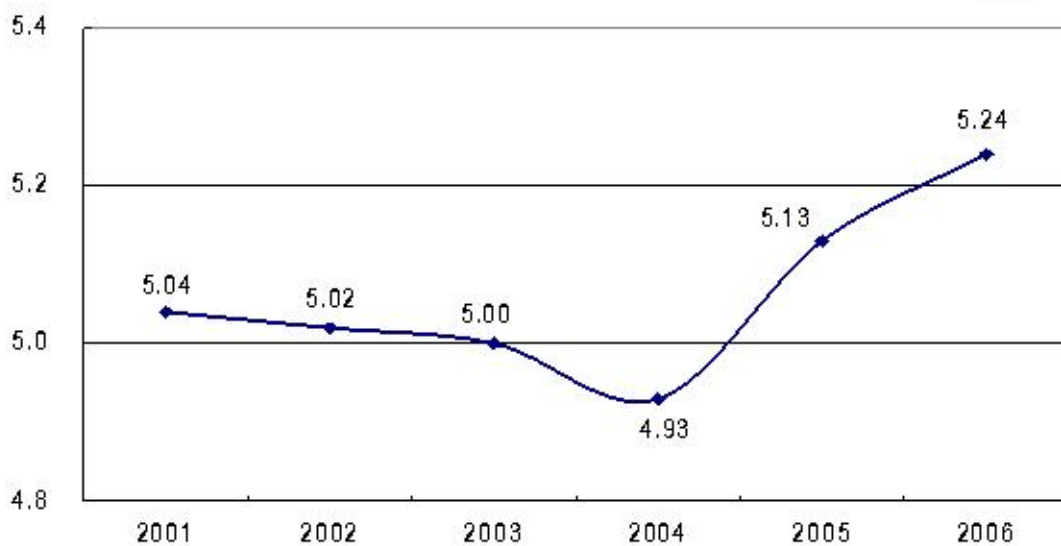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정부의 복지 및 분배 정책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이에 따르는 경제 활력 부진으로 소득 격차가 다시 크게 악화됨

- 2003년 이후 소득 격차 확대 : 외환위기 직후 급격하게 확대된 소득 격차가 2004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2005년 이후 크게 악화되는 추세를 지속함

-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1년 2/4분기 5.04에서 2004년 2/4분기에 4.93까지 개선되었으나, 2005년 2/4분기와 2006년 2/4분기에 각각 5.13 및 5.24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악화됨

<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단위 : 배)



자료 : 통계청.

주 : 2인 이상 가구의 각 년도 2/4분기 기준임.

- 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 평균 소득 / 1분위 평균 소득' 의 배율을 의미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두 그룹간의 소득 격차가 커짐을 나타냄
- 통계청의 가계수지 조사 대상 가구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5등분
-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 그룹이며, 5분위가 최상위 소득 그룹임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소득이 완전히 고른 상태를, 1은 완전하게 불균등한 상태를 의미함

⑤ 산업 : IT 산업의 한계성 표출

○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도 IT 부문의 생산, 투자, 수출 등 산업 활동이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내수보다는 외수에 의한 생산 및 투자 유발도가 높아 국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함

- IT 산업 자체의 고성장세 지속 : 2005년을 기준으로 IT 부문의 산업생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2000년의 8.4%보다 5.0%p 증가
 - 특히 IT 부문의 수출/총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9.6%에서 42.2%로 확대

< IT 산업 성장 추이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IT 산업생산 /GDP	8.4	9.0	9.9	10.9	12.3	13.4
IT 부문 설비투자 / 전체 설비투자	38.7	40.8	39.7	38.2	37.2	39.1
IT 부문 수출 / 전체 수출	29.6	28.0	33.5	37.0	39.5	42.2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체설비투자는 무형고정자산 포함임.

- IT 산업의 파급 효과 미약 : 그러나 IT 산업의 호조는 내수보다는 수출 경기에 매우 의존적이고, IT 수출마저도 IT 제품들의 수출 단가 급락으로 수출 실익이 크게 축소되어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됨
 - IT 소비/ IT 수출 비중은 2000년 36.7%에서 2005년 20.3%로 크게 축소
 -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의 2005년 수출단가지수는 각각 71.3 및 24.0에 불과

< 주요 IT 수출 품목 단가 지수 추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IT 부문 소비 / IT 부문 수출 비중	36.7%	43.2%	34.8%	27.3%	22.0%	20.3%
수출단가지수	100	86.9	83.1	85.1	91.5	92.7
반도체 및 기기 제외 총지수	100	93.3	91.5	97.5	107.5	115.2
정보통신기기	100	85	78.1	78.9	79.3	71.3
반도체	100	48.1	39.2	29.2	31.4	24.0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체설비투자는 무형고정자산 포함임.

⑥ 금융 : 금융 시장의 악순환 구조 지속

○ 국내 자금은 저성장 장기화, 저금리 지속 등의 원인으로 기업 생산 능력 확충과 같은 생산적 부문이 아닌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등으로 집중되는 금융 시장의 악순환 구조를 지속함

- 증권사 고객예탁금 증가 : 저금리 지속, 주식 시장 호조 등의 원인으로, 일반은행의 원화예수금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비중이 높아짐

· 고객예탁금/원화예수금 비중은 2001년말 2.7%에서 2006년 3월말 현재 3.2%로 높아짐

· 다만 증권사 고객예탁금이 높아지는 현상을 반드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자금으로 간주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 은행과 같은 예금 취급 기관의 기업 대출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원화 예수금이 기업 대출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가계 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 증가 : 가계대출/기업대출 비중은 2001년 78.8%에서 2006년 3월 현재 107.6%로 급등하였으며, 일반은행의 총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 비중도 2001년 24.8%에서 2005년 37.3%로 증가함

< 국내 금융 시장의 주요 자금 흐름 추이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3월
고객예탁금/원화예수금	2.7	2.4	2.7	2.4	3.2	3.2
가계대출/기업대출	78.8	90.5	90.9	99.1	108.3	107.6
주택담보대출/총대출	24.8	-	34.3	-	37.3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 1) 말잔 기준

2) 원화예수금, 대출은 일반은행 기준임

3) 고객예탁금은 증권사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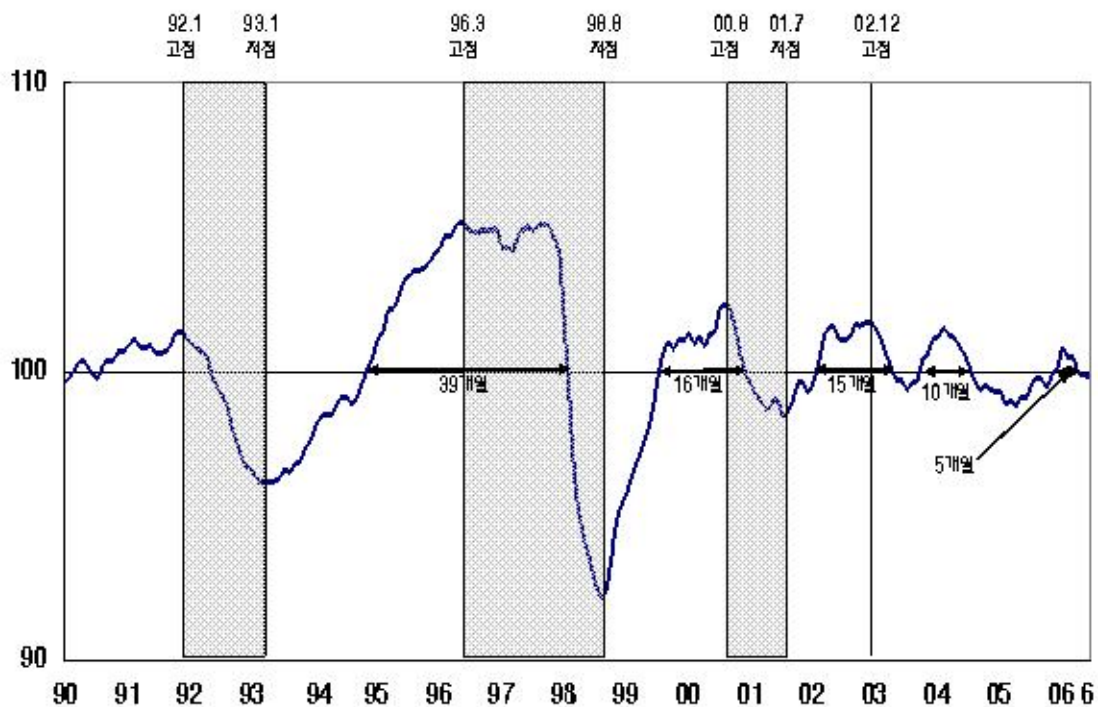
4) 총대출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등 일반은행의 모든 대출을 포함함.

⑦ 경기 : 잦은 경기 변동 (경기 회복력 약화)

○ 90년대 이후 국내 경기 순환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100 이상 지속 기간이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이후 급격하게 짧아짐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 이상 지속 기간은 외환위기 이전 1994년 11월 ~ 1998년 1월의 39개월에서, 최근 2005년 12월 ~ 2006년 4월의 5개월로 축소됨
-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경기 국면의 방향성이 자주 바뀔 경우, 국내 경제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 주체들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등 경제 행위에 대한 의사 결정에 혼란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됨

< 국내 경기 순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



자료 : 통계청.

- 주 : 1) 경기 고점 및 저점은 통계청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경기 전환점임
- 2) 지수 100의 의미가 반드시 경기 호황이나 불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3.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시사점) 2003년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동아시아 경쟁국들은 물론 세계 경제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정부가 지금의 경제 부진 현상을 단기적인 경기 변동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심각한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음

- 저성장 기간인 2003~2005년 기간 동안의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일시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상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에 실패할 경우, 향후에도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되는 저성장의 함정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 과제

-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 일시적인 경제 지표의 변동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짧은 주기의 경기 변동이 반복되고 있는 새로운 경기 추세를 인식해야 할 것임
- **소비의 자생력 강화** : 보다 적극적인 가계 부채 해소 노력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우회적으로 확충해 주어야 함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 불량자) 회생 지원 대책 강화 : 현재의 개인 신용 회복 대책의 요건 완화,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정상적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탕감 등 보다 전면적인 가계 부채 문제 해소 노력이 절실함
 - 저소득층의 소비 활성화 : 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최근의 비과세 감면 범위 축소 정책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 최근 저성장의 직접적 원인이 투자 침체에 따르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주식 시장 활성화와 투자은행 육성과 같은 금융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획기적 규제 개혁과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및 FTA 확산 주력 : 수출의 실익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한미 FTA 등 FTA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지속 가능한 분배 정책 추구 : 현재의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성장을 통해 분배의 재원을 키우는 先成長 後分配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계층간 소득 양극화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분배 복지 정책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아닌, 투자 회복으로부터 출발하는 성장 우선 정책에 있음
 - 따라서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富를 단순히 이전하는 零和(zero-sum) 방식의 분배 정책이 아니라,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사회 전체의 성장 활력을 높여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非零和(non zero-sum) 방식의 '지속 가능 분배를 위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신성장 산업 육성 :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거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IT 이후의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R&D 투자와 상업화 전략을 통해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함
 - 그러나 당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력 부문인 중화학 공업 및 IT 제조업의 경우에도, 가격 위주에 의존하는 국제 경쟁력 유지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 자본 시장 활성화 : 정부의 국내 투자은행업 지원, 대형 기업신용평가회사(CB)육성, 투자은행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주 원 연구위원(3669-4030, juwo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단념자 확대

○ 7월 취업자수는 6월에 비해 5만 4,000명 감소하고, 실업자수는 4,000명 증가하여 7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4%를 기록함

구직단념자 6월의 12만 2,000명에서 7월에 12만 4,000명으로 확대

- 한편 15~29세 청년 실업자 수가 38.3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823만 명의 46.5%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8.0%를 기록함

- 취직 활동을 포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구직단념자는 6월에 12만 2,000명에서 7월에 12만 4,000명으로 늘어남

고용 시장 부진이 소비 침체로 이어질 우려 증대

- 외형상 고용 시장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구매력 확충 부진으로 민간 소비 회복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4	5.2	-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2.9	-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7	-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7.1	18.6	12.4
	공급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10.9	-
		취업자수 (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50	2,345
		실업률 (%)	3.7	3.7	3.7	3.6	3.5	3.9	3.4	3.4	3.4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0	19.8	21.9	18.4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282	166	26	27	54	-11	9	11	-
	무역수지 (억\$)	294	232	60	49	61	18	55	22	7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6	2.3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3.4	2.9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美 연준 금리 동결로 美日 금리 소폭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속에 금융시장은 안정세 시현

- 美 정책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불안에 따라 美 국제 약세 시현
- 금리: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와 7월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의 혼조 속에서 FOMC가 기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약세 시현 (美 국채 10년물 : 4.96 → 4.92%)
 - 환율: 엔/달러 환율은 6월 기계수주 호전 불구, 금주에 BOJ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달러/유로는 향후 연말까지 미 FRB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감소로 상승 (\$/€ : 1.2755 → 1.2810, ¥/\$: 114.77 → 115.36)

○ (국내 금융 시장) 외국인 지수선물 순매수로 주가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통위 콜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국고채 금리 약세 시현
- 주가: 국제유가 급중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수선물 순매수에 따른 대규모 프로그램 차익매수 등의 영향으로 상승 (1,292.1 → 1,314.9)
 - 금리: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금리 동결에 따른 금통위 콜금리 동결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약세 시현 (국고채 3년 수익률, 4.79% → 4.75%)
 - 환율: 미 연준의 금리 동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미 달러화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하였고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전주 말 965.7 → 959.5)

○ (전망) 인플레 압력과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주가 조정 국면 지속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2/4	3/4	4/4	1/4	2/4	8.3	8.9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1,008.2	1,221.0	1,379.4	1,359.6	1,295.15	1,292.05	1,314.93
	국고채3년(%)	3.28	4.02	4.60	5.08	4.93	4.92	4.79	4.75
	원/달러	1,035.1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65.7	959.5
해외	DOW	10,783	10,275	10,569	10,718	11,109	11,191	11,200	11,174
	Nikkei	11,489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5,471	15,657
	미국채10년(%)	4.22	3.91	4.32	4.39	4.85	5.19	4.96	4.92
	일국채10년(%)	1.44	1.17	1.48	1.48	1.78	1.84	1.78	1.77
	달러/유로	1.3556	1.2108	1.2026	1.1849	1.2118	1.2725	1.2755	1.2810
	엔/달러	102.56	110.92	113.51	117.75	117.78	114.49	114.77	115.36
두바이(\$/배럴)	33.11	52.09	56.32	53.19	59.16	67.17	70.69	71.68	